수자원공사·화순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 협약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대장과 무등산 산행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지사장 기 남연)는 화순교육지원청과 '물의 가치 인식 제 고 및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물드림캠프'를 통해 화순 지역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물·환경 관 련 체험활동 운영, 학교·학생 참여 프로그램 홍 보 협력 등 교육・환경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 기로 했다.

기남연 지사장은 "이번 협약이 자라나는 지 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 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했다.



엄홍길휴먼재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창 호)는 지난 28일 세계 최초의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자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무등산 옛 길 2구간에서 회원 합동 산행을 했다.〈사진〉

회원 30여 명은 이날 원효광장에서 서석대, 인왕봉까지 걸으며 단풍과 억새 등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친목을 다졌다.

이날 산행에는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산

악회 회원들도 참여해 두 단체 간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엄 대장은 16좌 등정 과정에서 셰르파 등에 진 빚을 갚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부터 네팔 오지마을에 청소년들을 위한 휴먼스 쿨을 짓기 시작해 현재 16개를 완공했고 지난 6월 20번째 학교를 착공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독일 거주 박영희 작곡가 독일 '공로십자훈장 1급' 수훈



재독 음악가 박영희(80·사진) 작곡가 가 독일 '공로십자훈장'에 이름을 올린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은 박영희 작곡가가 29일(현지시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 이어 독일 대통령이 수여하는 '공로십자 훈장 1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독일 공로십자훈장은 정치, 경제, 문 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 사회에 기

여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앞서 재독 음악가 윤이상이 1988년 '대공로십자훈장'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9년 '공 로십자훈장'을 수훈했다. 시상식은 박영희 작곡가의 건강을 고 려해 그가 거주하는 브레멘에서 개최되며, 보벨슐테 브레멘 시 장이 훈장을 대리 수여할 예정이다.

박영희 작곡가는 '소리', '님', '마음', '노을', '타령' 등을 작 곡해 독일을 비롯해 유럽 음악계에 이름을 널리 알린 음악가 다. 독일 연방정부는 "현대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의 문화 적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훈장 수여 이유를 밝혔다.

194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박영희 작곡가는 서울대 작곡 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학술교류처(DAAD) 에서 장학생으로 유학했다. 이후 브레멘 국립예술대학 작곡과 교수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여성 및 아시아계 최초로 베를린 예술대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북구청 청년간부회의 위원들, 제빵 봉사활동

광주 북구청 제 31기청년간부회의 위원들의 나눔 봉 사활동 '청간과 함 께하는 빵긋빵긋한 하루'사회공헌활 동이 29일 오전 광 주 북구 임동 대한 적십자 광주전남지 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렸다. 〈사진〉 봉사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청년간부회의 위원들은 봉사관 내 제빵 명장의 도움으로 소금빵과 피 자빵을 직접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껏 구워낸 빵은 이날 오후 광주 애육원,



돈보스코 나눔의 집 등 북구 관내 취약계층 아 동·청소년 시설 3곳에 청년간부들이 직접 방문 해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온기를 나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선출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 장에 최갑렬〈사진〉 파라뷰플러스 회장이 선출 됐다.

최 신임 회장은 30세에 건설업에 입문해 지 역 건설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대 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쳤다. 지역에서는 BBS광주불교방송 사장,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조계종 중앙신 도회 부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삼일건설을 필두로 파라뷰플러스, 바이슨이 엔씨를 지역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최 회장은 무안, 화순, 대전, 충남 아산, 충북 충주, 경기 도 포천 등에서 '삼일파라뷰' 주택 사업을 진행

최 회장은 2019년 설립된 삼일파라뷰 문화재



단을 통해 지역 인재 양 성을위한장학금을기부 했으며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와병원등에도서 관 건립 기금, 발전 기금 등을 후원했다.

최 회장은 "시대에 동 떨어진 불합리한 주택 규

제·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의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지역 주택 건설사들이 전국 민간 주택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주택 품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이·취 임식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5시 광주상공회의 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최윤희 전남대병원 복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전남대병원 최윤희〈사진〉의료사회복 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 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호 스피스의 날 기념식 '수상식에서 연명의 료결정제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 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상담 및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MBC 뉴스특보 〈APEC 2025 코리아〉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55 APEC 2025 특집 SBS 10 뉴스
10	00 KBS 뉴스특보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인간극장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00 동해의 제국(재) APEC 정상회의 기획 특선 다큐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셀럽병사의 비밀(재)	00 MBC 뉴스특보 〈APEC 2025 코리아〉	00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APEC 특집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랄라 행복한 곰돌이
1		30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00 고향이 보인다
2	00 KBS 뉴스특보		00 MBC 뉴스특보 〈APEC 2025 코리아〉	00 APEC 2025 특집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캐리야 학교 가자(재)		00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재) 50 닥터 365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00 탑클래스
5	00 KBS 뉴스특보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00 MBC 뉴스특보 〈APEC 2025 코리아〉	00 APEC 특집 SBS 오뉴스 30 SBS 뉴스특보 APEC 2025
6		10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LG:한화〉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개는 훌륭하다	00 광주MBC 창사특집 시사용광로	00 별의별 토크 보고 보고 보고서
10	00 경주 APEC 정상회의 의미와 전망은?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00 KBS 뉴스라인W 40 KBS 중계석	10 은수 좋은 날(재)	50 MBC 뉴스 25	50 닥터 365
12		40 아이 러브 스포츠	10 리얼 라이브	00 네모세모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떠나 볼까? 요즘 뜨는 슬로베니아 시간이 빚어낸 선물〉

07:30 엄마까투리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9:20 오구오구 내 새끼(재)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45 레인보우 버블젬

09:30 똘비와 하잇희의 직장습격(재)

05:00 왕초보영어

08:50 슈퍼윙스 슈퍼콤보

EBS1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00 페파피그

17:10 레인보우 버블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18:10 EBS 뉴스

18:30 기획취재 -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세상에 이런 섬이! 모리셔스·레위니옹 감춰진 풍경 속으로〉

21:35 한국기행

〈곳간 채우는 날 4부 목화솜 따던 날〉

21:55 왔다! 내 손주 22:45 EBS 다큐프라임(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10일 壬申)







36년생 큰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48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튈지 모를 일이다. 60년생 어 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72년생 사소한 집착이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84년생 살펴 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96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바가 많다. 행운의 숫자 : 2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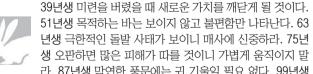
丑

37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 다. 49년생 돌발적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하 라. 61년생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차지하게 된다. 73년생 뜻 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85년생 활로 개척 을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97년생 예기 치 못한 이로움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20,97



辰

38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50년생 소 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자. 62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74 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86 년생 긍정적인 시각이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다. 98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47,56



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니 매사에 신중하라. 75년 생 오판하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말 라. 87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99년생 卯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06,94 40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겠다. 52년

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자. 64년생 공들 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76년생 매 우 비슷하여 혼동할 수도 있으니 앞뒤 분간을 잘 해야겠다. 88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니라. 00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27,61

巳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41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53 년생 알뜰하다면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65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정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77년생 파 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89년 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01년생 행운의 숫자: 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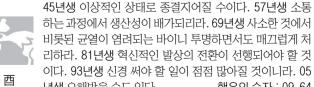
42년생 흩어져 있는 것은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54 년생 한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6년 생 깔끔한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78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한다. 90년생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02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40,73



43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55년생 혼 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하자. 67년생 마지막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선택을 하라. 79년생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져 있지만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91년생 얻 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03년생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 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1,93



44년생 큰 행보로써 수용하는 것이 맞다. 56년생 자발적으 로 응하는 것이 유익하다. 68년생 때가 아니니 집착일랑 과 감하게 떨쳐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80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92년생 새 롭게 해야 할 때이다. 04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이 치를 터득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95



년생 오해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9,64 46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8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70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82년생 단순 하게 반복한다거나 획일적이라면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94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기울여라. 06년생 예

행운의 숫자: 04,53



47년생 현장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9년생 느낀 그대로 인식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함이 유익하다. 83년생 과욕한다거 나 성급하게 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야만 무탈하리 라. 95년생 진솔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07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행운의 숫자 : 46,50









